

《기조강연》

人類平和原理로서의 大巡思想

林 泳 暢 *

目 次	
1. 인류에게 평화를...	3. 새 세기는 어떻게
1) 개개인의 평안	1) 제3문화의 정립
2) 사회의 화합	2) 대순사상의 세계진출
2. 돌아본 20세기	4. 인류의 평화와 대순사상
1) 기계문명의 발달과 정신문화의 퇴하	1) 21세기에 부치는 상제의 메시지
2) 민족의 영욕(榮辱)과 세계의 성쇠(盛衰)	2) LVX ET ORIENT(빛은 동방에서)

前 文

19세기말 독일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 비츠(Klaus Witz)는 그의 군사전략서 첫머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政治)의 연장이 전쟁(戰爭)이다' 모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는 문관이 하는 점잖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공사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인명 대량학살의 전쟁, 바로 그것의 모태라는 것이기에서였습니다.

전쟁(戰爭) 그것이 열전은 물론이고 냉전(冷戰)까지도 다 가시어져서 5만년(五萬年) 청화세계(淸華世界)가 이룩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인류가 희원(希願)하는 최고의 이상입니다. 그것은 오늘 열리는 이 학술대회(學術大會)는 물론이고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가 이상으로 하는 종교적 지상목표(地上目標)입니다.

* 前 경남대 교수, 종교학박사, 현 대순사상학술원장

그런 뜻에서 오늘의 이 대회가 내건 명제가 인류평화원리로서의 대순사상입니다.

1. 인류에게 평화를……

인류는 또 인간은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좋아합니다. 과거의 정부들이 범죄와의 전쟁이니 또 무엇과의 전쟁이니 하던 일들이 생각나는데 전쟁을 선포는 했어도 승전부(勝戰賦)를 올리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은 휴전이 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셈입니다. 집안의 윗사람이 가족들의 잘못을 보고 '그러면 못쓴다'고 한마디하면 그로써 끝나는, 권위가 없어지고 따라서 나라의 웃어른이 '그래서는 안된다. 그런 나쁜 짓을 하면 매맞는다' 해도 수그러들지 않으면 전쟁을 열번 치러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 전체에게도 이런 윤리적이고 형이상적인 정신의 권위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시대의 실정에서, 인류가 갈망하는 항구(恒久)한 평화의 도래(到來)를 위해 이 원리를 찾아보고 그 실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1) 개개인의 평안

세계적으로 인류 전체를 상대로 하면 평화란 말이 적절하지만 개인으로 볼 때는 먼저 평안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평안이란 쉽게 말하면 태평무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 있으니 안심, 안신(安心, 安身)입니다. 이 말들은 일찍부터 동양사회에서 사용하던 말이지만 대순사상에서는 신조(信條) 4강령 중의 1, 2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평정(平定)하는 것과 몸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종교생활에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살아가면서 더 느끼는 것이 인생입니다.

2) 사회의 화합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개개인 마음과 몸의 안정으로서만 만족할

수 없고 사회적인 화합의 평화가 없으면 만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야 하고 학생은 학교에서, 근로자는 근무처에서 그리고 이웃끼리 지방마다 지역마다 화합해야 하고 국가 전체가 그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서대화합이니 남북재결합에서 하는 켈치플레이즈가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사실 인류 전체의 평화, 화평을 바라는 이상은 이런 기초적인 단계적 평화의 과정(過程)을 거치지 않고 그냥 부상(浮上)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사회의 현정(現情)을 살펴보면 압니다. 여·야간의 불화합, 노사간의 불화합, 정부와 국민, 학교와 학생, 구세대 사람과 새세대 사람, 종교간에도 지역간에도 극도의 이기주의와 이해사상 속에서 화합이니 단합이니 하는 말들은 사전에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화합과 화평의 새로운 가풍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될 것입니다.

2. 돌아본 20세기

참으로 20세기는 인류의 유사 이래 일찍이 상상도 못했던 과학적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류에게 최고 지상의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비례적인 전통, 종교, 도덕, 문화, 정서는 글로벌(세계화)이라고 말하기 전에 벌써 서구화하다가 원시적으로 퇴화해 버렸다고 아니할 수 없는 실태가 되어있습니다.

20세기가 되면서 무너진 왕국, 조선 곧 우리의 조국을 돌아보면 후진국에서 중진국(이것은 경제척도지 문화척도는 아니다)의 위치에 올라서기까지 온갖 고난을 다 겪다가 겨우 군색(窘塞)은 면한 것 같습니다.

세계는 또 어떤가하면 각 민족, 각 국가의 영고성쇠가 어느 것 하나 심상한 것이 없고 아직도 지구의 곳곳에서는 열병을 앓고 있는 종족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우리는 20세기를 인류 영광의 시기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과학문명의 발달과 정신문화의 퇴화

에디슨의 전기발견과 함께 20세기는 급속한 발전 발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산업의 발전이나 라디오, 텔레비전으로 이어지던 기계문화는 드디어 컴퓨터의 시대로 발전하였습니다.

의학, 약학의 발달도 말할 수 없었지만 육종학, 유전학의 발달은 동물복제에서 인간복제까지로 나아가서 점차 또 어떤 별난 일이 일어날 지 모를 지경입니다.

대기권에는 제트기와 헬리콥터가 새뻬처럼 날아다니고 인공위성이 옛날의 비행기만큼이나 흔해졌으며, 지상에는 고속철도에 아우토판까지 기차나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듯하고 자동차가 넘쳐서 강물흐르듯 밀려가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밤은 낮과 같이 환하고 한겨울에 수박을 먹고 한여름에 얼음을 먹는 것은 벌써 백년전의 일입니다. 겨울엔 방안이 더워서 옷을 벗고, 여름엔 추워서 감기가 들립니다.

이것이 대순진리회의 도주 정산이 말씀한 선경세계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현실속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정신문화가 퇴화하여 가위 원시화한 것 같은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것이 다 좋은 것이야 아니지만 우리 선민(先民)들이 지니고 있던 정신문화 더구나 동양적인 것, 한국적인 것이 모두 망그러진 것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란 말 그대로 이러한 바탕위에 새로운 것을 받아서 새것을 만드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병통이 서구문화의 섭취였습니다. 동방의 한 작은 왕국의 20세기초의 시대는 성숙되지 못한 세계의 우락부락한 열강(列強)앞에 철없는 산골색시 같았습니다. 그들이 옷을 얻어 입고 주는 빵조각을 얻어 먹고 그들이 하는 대로 악수를 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개화(開化)라는 이름의 그 당시 글로벌이었습니다.

집도 옷도 음식도 인사하는 법도 누워 자는 법도 다 그들의 하는대로 닮아갔습니다. 충(忠)이니 효(孝)니 5상(五常) - 인·의·예·지·신(仁義禮智)

信)같은 것은 휴지화했고 3강(三綱)이니 5륜(五倫)이니 하던 것들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 배운 것의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피가 함부로 혼혈(混血)이 된 튀기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 20세기 오늘의 우리 문화입니다. 그래서 배꼽 드러내는 것을 자랑으로 아는 나체문화(裸體文化)와 옛날 농사꾼이나 걸구(乞求)패 사당패가 하던 풍물놀이가 아주 전통문화 행세를 하는 기현상(奇現狀), 이현상(異現狀)을 백일(白日)하에 노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입니다.

2) 민족의 영욕(榮辱)과 세계의 성쇠(盛衰)

한민족의 20세기 100년사를 영욕(榮辱)이란 글자로서는 너무 축약된 것 같아서 몇가지 부문별로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민족의 주체성, 그 가운데는 주권(主權)이니 인권(人權)이니 한 중대한 사실을 필두로 정치, 군사, 외교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민족의 주체성 그것을 우리는 타율적(他律的)으로 훼손, 포기당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또 자율적(自律的)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무력감과 그보다 눈에 안 보이는 정신적, 역사적 압력 속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기초에 국권을 일본제국주의에게 뺏기는 식민지신세가 되기도 했으며 연합국이라는 타력(他力)과 독립투쟁이라는 자력(自力)으로 해방은 되었으나 또 미·소 양군의 점령하에 국토가 양단되는 기구한 운명을 맞본 것입니다.

거기서 갈라진 2개의 정권이 서고, 2개의 사상권, 2개의 문화권으로 갈라진 반세기에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민족상잔의 전쟁을 치렀지만 남쪽은 불에 타서 다시 사는 피닉스(不死鳥)처럼 약간의 자구책(自救策)이 강구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은 침략자였는데도 또한 폐허가 되어 새벽별 보기니 천리마 운동이니 하고 일어선다고 했지만 몰사(沒死)직전의 몸부림과 단말적 발악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영광은 적고 치욕이 많았던 역사적 민족의 참다운 영광은 재결합 재화합된 통일입니다마는 구호(口號)만 무성하게 공중에 떠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탈은 이 현실과 함께 있어야 할 정신입니다. 북쪽은 북쪽대로 김일성 민족의 김정일 국민이 되어 버렸는데 남쪽은 또 남쪽대로, 이게 순수한 한(韓)민족인가 또 의심이 드는 판입니다. 머리칼 노란 남자애나 배꼽 내놓은 여자 애를 보면 그들은 편리한 코스모폴리탄이 된 이방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서글픈 실정입니다.

이런 말을 늘어 놓는다고, 또 무슨 해결방안을 내어놓는다고 금방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다함께 꾸준한 정신적 노력이 있어야 할뿐입니다.

다음 20세기 한백년의 세계의 정세는 어떠했습니까? 각민족 각국가의 흥망성쇠가 참으로 평화롭지 못했던 역사의 파노라마를 우리 머리에 펼칩니다.

전문(前文)에 독일군인 클라우제의 말을 인용했지만 독일제국의 카이제르(Kaiser)는 정치의 연장으로 전쟁을 내어 밀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결과는 독일과 함께 사라센제국도 갈갈이 쪼개졌습니다. 그후 30년만에 패전의 길을 걷던 독일은 히틀러(Hitler)라는 이인물(異人物)이 나서 이탈리아와 일본과 손을 잡고 추축(樞軸)국이라고 하여 신세계를 만든다면서 침략의 전쟁인 제2차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영국, 미국, 소련, 중국 등의 연합국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 한국도 자유를 얻기는 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들 가운데 독립을 한 곳도 있고 자치권을 얻은 데도 있으며, 프랑스령, 포르투갈령, 스페인령 등에서 독립국가가 속출하여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빼고는 쏘라가 유럽국가의 식민지가 되었던 아프리카까지도 독립의 서광이 두루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20세기초에 썬아(皇帝)러시아를 말살 파쇄하고 거대한 소비에트의 연방을 건설한 공산주의 신국가와 대치한 서방 자유국가들의 냉전 또한 열전 못지않게 세계인민의 가슴을 흥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70년의 역사를 더 넘지 못하고 자멸했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공산주의라는 종교같은 사상에 대체할 사상을 주지않고 개방 개혁을 한다고 한 것이 별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 시사(示唆)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위에는 쿠바와 북한이 약간 변질된 공산주의를 붙잡고

있는 최후의 붉은 보루라고나 할뿐입니다.

동방진영 곧 공산주의 동구국가들이 도미노현상으로 줄지어 무너지고 가면 세계는 안정되고 인류는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급박한 혁명적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만하게 서서히 진행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의 평화가 공산혁명만큼 쉬운 것은 아닌가 봅니다.

좀 이색적인 예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백인종차별의 철폐와 피부색 다른 두 집단이 한 국가를 건설하고 과거는 탓하지 않고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사는 대순사상적으로 말하면 해원상생적으로 새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 또한 20세기 역사의 특종 사건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민족으로서도 한 국가를 못 만드는 우리민족은 세계 앞에 수치스러운 민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트남의 문제나 코소보의 전투나 중동문제 또 동티모르사건 등 20세기의 마지막까지도 세계는 평화라는 글자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3. 20세기를 어떻게

이제 곧 21세기를 맞습니다. 이 새로운 세기는 지나간 낡은 세기와는 다르게 인류 모두가 평화 속에 행복스럽게 살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은 세계인류 모두의 공통된 희망사항입니다.

진정 21세기의 인류평화를 소망하고 기원하는 인사들이 이 때에 그 근본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깊이깊이 생각해야만 할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1) 제3문화의 정립

영국의 사회학자 앤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제3의 길'이란 책을 내었을 때 모두는 주목의 눈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5, 6년 전부터 여기 저기에 글을 쓰면서 '제3문화의 수립'이란 말을 고창했는데 그 의취가 꼭 닮은 것은 아닙니다만 간단히 소개합니다.

기든스는 첫째, 유럽에서 실패한 사회민주주의를 쇄신, 발전시켜 정치적

이상주의의 부흥책으로 한다고 합니다.

둘째, 위험과 변화에 대한 관리를 국가와 함께 초국가적 조직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혼합경제의 주창입니다. 고액의 봉급자와 저액의 노동자의 불균형에 대한 불만때문인데 고액은 회사의 경영자 간부들과 인기 연예인들의 고수입에 불평이 크다는 것입니다.

넷째 복지국가를 재건해야 한다며 적극적 복지론을 주창했습니다.

다섯째 엄격한 고용입법 같은 노동시장의 정직성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 등이 그의 주론입니다.

이런 것은 인류평화의 원리가 될 것은 없지만 다만 사회문제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는 것으로 잠깐동안 인기를 얻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말하고 싶은 제3의 문화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음 몇 가지입니다.

첫째 전통과 현대의 제3사상, 제3윤리, 제3문화가 21세기의 새로운 합명제로서 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동양과 서양의 종교, 윤리, 도덕이 또한 제3의 노선을 찾아 종교끼리끼리 서로 껴안아 이해하고 좋은 교리를 나누어 가지고 동양의 예(禮)를 존중하는 윤리와 서양의 형식적인 에티켓이 조절되며 도덕적 기준 또한 동서양의 장점이 조화한 그런 제3의 문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주 차원을 달리한 좀 비현실적인 것인지는 몰라도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니 하는 것이 경제에 기준할 것뿐만 아니라 문화에 기준하는 2원적 시각에서 천하의 천민들이 돈만 있으면 일등국민이고 수천년 문화민족도 돈 없으면 야만시하는 것이 아닌 제3의 눈, 제3의 기준이 유엔이나 유네스코 같은 기구를 통해서 논의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저절로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는데 누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한단 말이나고 항변(抗辯)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물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정체성이 허물어집니다. 오늘의 자유분방의 방자하고 무질서한 잡초 우거진 들관 같은 사회가 됩니다. 어떻게 화초를 가꾸어 거름주고 가위로 잘라 주고 하는 원정(園丁)의 손이 소용되듯이 방일(放逸) 무

질서해진 오늘의 세상에 애정 어린 가위질이 있어야 하고 문화의 거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제3의 문화를 수립해서 보급할 자료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대순사상입니다.

2) 대순사상의 세계진출

이 짧은 지면에서 대순사상의 전반을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교의의 핵심이 되는 종지(宗旨)를 그것도 이 논제에 필요한 만큼만 요약해서 말해봅시다.

(1) 음양합덕(陰陽合德)

이 말의 뜻은 음과 양의 덕(德)을 합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음과 양을 합친 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글자풀이에 너무 빠지면 옛날 중국의 훈고학(訓詁學 또는 訓故學)조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저 음양이 합친 것이라고 알면 됩니다.

이 음양이란 것은 어려운 원리가 아닙니다.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 남자는 양이며 여자는 음, 활동하는 것은 양이고 조용히 쉬고 있는 것은 음입니다.

물리적인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음양에서 모든 것이 조성(造成) 조화(造化)된다는 것을 알면 대순사상의 일부는 아는 셈입니다.

대순사상은 곧 태극사상입니다. 우리 국기, 태극기가 음양합덕을 그대로 나타낸 태극도상입니다.

덴마크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며 2차대전때 미국정부의 초청으로 아인슈타인과 함께 원자력연구에 힘을 쓴 덴마크의 닐스 보어(Niels Bohr)박사는 미국서 처음 한국의 태극기를 보고서는 내가 연구한 상보성원리(相補性原理)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좋아서 조국에 돌아간 다음 자기 집 때문에 태극을 그려 붙이고 자기 코트 오른 가슴에 그려 붙일 정도였던 일화는 유

명합니다.

알고보면 이것이 바로 우주만물 생성발전의 원리며 또 오늘 이 대회的主제인 평화원리입니다. 또한 자연과학의 원리며 인류생활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 앞에는 신(神)이고 귀(鬼)고 도깨비고 하는 존재도 무색해집니다. 인존(人尊)과 평화의 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양이고 신귀(神鬼)들은 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음양이 합덕해야 정음정양(正陰正陽)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 다음에 나오는 신인조화(神人調化)입니다.

(2) 신인조화(神人調化)

신에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신(內在神)이 있고 외계의 신도 있습니다. 인간이란 인간 혼자서 계획하고 노력해도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많은 것이 인간사입니다.

인간의 힘, 곧 양(陽)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은 음(陰)의 합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음양이 합덕해서 조화(調和)하면 거기서 조화(造化) 곧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얼마나 합리화한 이야기가 신이니 조화니 하는 고유 문자 때문에 경원해지기 쉬운데 이것을 쉽게 말해서 신과 잘 어울리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쉬워질 것입니다.

참 신명나고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神明 곧 神)이 우리 속에 있으니 까 신명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그 또한 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신(精神)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육체의 조화가 곧 신인조화라고 풀이가 됩니다.

(3) 해원상생(解冤相生)

이 말도 쉽게 하면 원한으로 막힌 것을 풀고 서로 돕고 살라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에게 전도 포덕할 때는 이렇게 쉽게 풀어서 가르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이, 인간끼리, 인간이 모든 동물, 식물의 생물들, 또 그리고 무생물인 산과 물과도 서로 원한으로 막혀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끼리, 종족은 종족끼리, 지역은 지역끼리, 정당은 정당끼리,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

가, 학교와 학생사이가, 또 이웃사람과 소매치기, 절도와 강패와 뺑소니 운 전사 뭐 원망, 원한 맺힌 관계가 중중무진(重重無盡)합니다.

여기서 이 원한의 얽매임에서 해방되면 얼마나 즐거운 심정이 될 것이 아납니까? 그래서 원수끼리 손잡고 화해하고 서로 돕는 일, 우선 술한잔 해 보십시오. 스트레스가 가을하늘처럼 가시어지고 나의 맑은 신(精神)을 내가 볼 것입니다.

미운 자식 떡 한 개 더 준다는 속담처럼 미운 사람에게 더 다정하게 해보면 그 사람이 흔감해서 그 효과가 더 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살고 평화 가 찾아옵니다.

이런 정신으로 한세상 살아가면 진정 인생이 살맛 날 것입니다. 세계 인류 모두 이렇게 살면 그날부터 평화로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평화의 기본 원리라고 넉넉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도통진경(道通眞境)

종교적으로 도통이라면 먼저 신비감을 느끼고 진경이라면 저승을 생각하기 쉬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 없습니다.

바로 이 말도 쉽게 번역하면 인간의 사는 길을 환하게 알면 참다운 경지가 열린다는 말이 될 겁니다.

대순사상은 종교사상이기 이전에 위대한 인간학입니다. 우주의 원리를 가장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정신과 육체가 하나되고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이하학적인 것이 조화되어 원한을 풀고 서로 돕고 살면 인간의 도가 확 트인 참다운 경지가 나타난다는 이 사상을 21세기의 세계에 수출하여야 합니다.

여주와 포천 또 증곡동의 도장들이 세계인이 찾는 곳이 되게 하고 대순사상이 인류의 정신문화 소생, 평화세계건설의 정신자원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단과 도인 전체가 짊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순진리회가 세계에 눈을 돌려 새로운 천년을 내어다 보는 큰 계획을 획책하시기를 여기서 부탁드립니다.

4. 인류의 평화와 대순사상

위에서 누누이 말한 것처럼 세계를 둘러보야 별다른 사상이나 학설이 없습니다. 인류는 빵만 먹고는 못살고 컴퓨터가 인생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평화 속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의 길, 그것이 필요한 것이니 그것이 곧 하늘의 길이며 인류평화의 길이기도 합니다.

1) 21세기에 부치는 상제의 메시지

대순교의에서 신봉하는 구천·옥황 양위상제가 21세기를 향해 보내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것은 별 것 아닙니다. 위에서 역설한 평화원리의 대순사상, 그 가운데서도 종지 4버리(綱)입니다. 진멸(殄滅)의 빈사상태에 빠진 지구 창생에게 보내는 상제의 넓은 은택에 접한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인류의 평화원리인 대순사상, 오늘의 주제가 오늘 뿐만이 아닌 인류 영원의 복음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2) LVX ET ORIENT (빛은 동방에서)

옛 로마사람들이 한 말을 여기에 옮깁니다. 빛은 언제나 동방에서 온다는 평범한 말이 진리입니다.

동방의 은사(隱士)국, 문화선진국 한국에서 21세기를 구제하는 복된 소리가 울립니다. 함께 오늘 하루 이 대순사상이 얼마나 절실하게 21세기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기본원리가 되는 것임을 재인식하고 이에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또 실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